

벽을 허무는 진솔함의 힘.

“이소라의 음악도시”

국정민

요즘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면, 가장 쉽게 느끼게 되는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방식으로 제작되고, 진행된다는 점이다. 라디오 프로를 예로 들자면, 저녁 8~12시대 청소년들이 주로 청취하는 프로들은 그 진행자들 부터, 10대들에게 있기가 높은 가수들이고, 초대 게스트들도 대부분 10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가수 중, 말재주가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프로들은 그 선곡하는 노래에서부터, 모든 사연까지 철저히 10대(20대 초반까지)들을 겨냥한 프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연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이거나, 남녀 사이의 연애상담이고, 프로그램 중간, 중간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코너에도, 참여하는 청취자의 90% 이상이 10대 학생인 경우이고, 그들과의 대화 내용도 좋아하는 스타나 이성에게 하는 사랑고백, 연예인 성대묘사, 노래 따라 부르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금 내가 위에서 예로 든 경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의 예를 든 것이지만, 다른 시간대의 프로들도 특정 연령층 또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요즘의 한국사회가, 세대간의 갈등이 심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가 없는 상황에 있고, 방송이 세대별·계층별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지 모르겠다. 어쩌면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대와 계층별로 분화된 방송을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였고, TV프로나 라디오 프로의 채널을 틀고, 맞출 때, 내 나이와 계층을 인식하며 봐주기(?) 어려운 프로는 건너 띄고, 방송사가 나에게 허락한(?) 프로들 중, 내 기호에까지 맞는 프로를 어렵사리 골라가며 시청해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나에게, 방송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낼 때, 연령과 계층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고, 서로의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프로가 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들게된 이소라의 음악도시(밤11시~새벽 1시). 새로운 시간대로 편성되기 전 MBC라디오 FM 91.9

에서 자정에서 새벽2시까지 진행되던 프로였는데, 난 그때 이런 프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야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파수를 돌리다가, 우연히 듣게 된 한 사연은 대학교 4학년 여대생의 사연이었다. ‘언니. 우리집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어요. 내 친구가 나보고 머리는 그게 뭐냐고... 꼭 아줌마 같아 보인다고 해요...너무 속상하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새활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프로를 끝까지 듣게 한 것은, 그런 내용의 사연을 다른 어떤 프로에서도 이전에 들어 본적이 없었고, 그런 내용이 방송을 타고 나온다는 사실에 일단 너무 충격을 받은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다른 방송프로그램에 어려운 이웃이 등장해서, 모금을 하는 프로가 있다. 뉴스에선 청년실업, 대학생 휴학사태 등을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로 연일 떠들어 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방송 프로그램 중 특정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편성된 프로그램에서만 나오는 것처럼 도식화되어 있다.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년·소녀 가장 또는 무직자라고 불리우기 이전에, 청소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사연 역시, 청소년 내지 일반 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에 얼마든지 소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내용의 사연을 단 한번도 다른 프로에선 들어볼 수 없었던 것일까? 우연히 듣게 된 한 프로그램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그 후부터, 난 다음날의 직장 생활에 무리가 됨을 느끼면서도, ‘이소라의 음악도시’ 를 아주 피곤한 날이 아니면 꾸준히 듣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청취해 나가면서, 난 내가 우연히 듣게 된 그런 사연이 어느날 하루 우연히 소개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너무나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진솔한 자기의 사연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속 이 프로를 청취하면서, 나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는 이런 청취자의 진솔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꾸준히 들으며 발견한 그 힘은, 물론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이소라라는 사람의 진솔함과 그 사람이 주는 포근함이었다. 진행자 이소라의 형식에 메이지 않는 진솔한 멘트, 진행방식이 프로그램 전체에, 마치 방안의 향기처럼 편안함이 묻어나오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진행자의 특징 외에도, 이 프로그램은 그 형식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과는 많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었다. 프로를 듣다보면, 중간

중간, 진행자인 이소라씨가 방송 피디와 작가에게 말을 직접 건네고, 그 작가들이 직접 대답을 하지는 않지만, 진행자가 그 PD와 작가들의 반응을 청취자에게 자연스럽게 말해준다. 예를들면, 지금 “PD는 ...를 하고 있고, 작가들은 ...을 먹고 있구요...” 다른 프로그램과의 작은 차이이지만, 청취자는 단순히 방송이라는 세팅에 놓여 있는 한 진행자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방송의 현장감을 느끼고, 피디와 작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임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방송 내내, 인터넷 사이트 상에 올리는 사연들을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 청취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한 사람의 문제와 사연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 주고, 답을 해주는 느낌을 받게 한다. 정말로 누군가의 고민이 받아들여 지고 있고, 입에 발린 위로나 예의상이 멘트가 아닌, 함께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초청된 게스트들도, 자신들의 청소년기의 고민, 백수시절의 아픔, 실연담, 가정이 이혼하며 느꼈던 아픔들을 너무도 솔직히 이야기 한다. 이런 먼저 자신을 열어 보이는 진솔한 모습은... 청취자들 속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이끌어낸다.

한 10대 여학생은 ‘언니 지금.. 우리 아빠랑 새엄마랑 싸워요. 우리 아빠는 지금 새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난 새엄마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아빠는 뭐든지 잘못되면, 그게 다 나 때문이래요.’ 라는 사연을 올렸다. 이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에 나온 게스트는 자신도 10대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너무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 한다. 그러면서 그래도 ‘인생은 자기 몫이고...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마구 포기하고 사는 것은 결국 자기의 선택이라는’ 어려운 자기 고백적 충고를 해준다.

누군가의 진솔함은 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설사 모두가 이런 심각한 사연을 보내오는 것은 아닐 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을 열고, 가장 아픈 부분까지 내어놓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 보이고, 서로가 용납 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사람들로 세대를 넘고, 자신의 독특한 취향을 넘어서,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준다.

‘이소라의 음악도시’에선 청소년들은 꽃돌이, 꽃순이라고 불리운다. 20대는 꽃처녀, 꽃총각으로 불리우고, 이들이 적극적 프로 참여자 이다. 그러나 택시운전자인 30대 노총각, 40대의 밤에 악세사리 핀 만드시면서, 음악도시를 듣는다는 아주머니 애청자, 자신을 5학년 2반이라고 소개하는 50대의 귀여운(?) 독신자 선생님등... 수

많은 계층과 다양한 삶의 모습의 사람들이 이 프로를 애청하고 자신들의 추억과 삶이 묻어난 사연들을 보내온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닐텐데, ‘이소라의 음악도시’의 애청자들도 한결같이 너무도 진솔하고, 다른 세대에 마음이 열려있는,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을 자주 보내온다. 한 10대 청소년은 얼마전 우연히 지하철에서 본 재미있는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을 보내왔다. ‘제가 며칠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제 앞에 앉아 계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문자를 보내고 계신거예요. 신기해서 무슨 문자를 보내나 보니까요... 성인광고 문자메시지에 답을 보내고 계시는 거 있죠.’ 전 그런거 안합니다.. ‘그 할아버지 너무 재밌죠?’ 그 사연을 보내 준 꽃돌이는 한 마음 젊은 할아버지를 모든 청취자가 알고, 느끼게 해 주었다.

현대 사회를 흔히 사회가 지나치게 분화되고, 사람이 기계 부속과 같이 취급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을 대변이나 하듯, 요즈음의 방송프로그램들은 지나치게 분화되어(section)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개인 속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각 세대들간, 계층간에도,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려 한다면, 분명 서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지한 노력 없이,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안정된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어느 한 세대나 계층, 그것도 그 특정 계층의 진지한 관심사도 아닌 말초적 감각과 감상에 어필할 수 있는 프로를 쉽게, 쉽게 제작하고 진행하면서, 우리는 서로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너무도 많은 공통점들을 찾아 낼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요즈음 우리 사회나 정치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세대간의 갈등으로, 코드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세대간의, 계층간의 벽이 높아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를 열어 보일 수 있는 장이 너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송에서 제시하는 각 세대와 계층을 이미지화 한 고정된 표준은, 너무나도 왜곡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방송프로를 듣다보면 10대는 고민하는 것이 대학입시, 친구 사이의 갈등이고, 20대는 연애, 30대부터는 생활의 고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준화가 주는 왜곡의 가장 큰 폐해(弊害)는, 사람들이 사회가

제시하는 표준에 맞추어, 그 표준처럼 행동하게까지 한다는 데 있다. 흔히 기성세대가 철없고, 컴퓨터 채팅과 게임에만 열을 올린다고 하는, 10대들과, 나의 직업상, 자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의 자신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나 고민이 의외로 구체적이고 진지한데 놀랄게 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진지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대부분의 경우엔, 그들은 사회가 그들을 표준화시킨 것처럼, 될 수 있는 대로 진지하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간다. 자신들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말할 기회를 잃은 채...

내가 특히 이렇게 10대들의 고민과 모습에 대해 주로 예를 들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내 자신이 10대 때 느꼈던 고민과 방향을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정의 불화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선생님이 상담을 하겠다면서, 반에서 1번부터 60번까지를 한명 씩 불러다 놓고, 너 요즘에 무슨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고민이냐고 묻는 상황이었다. 솔직히... 난 그때 그런 고민이 먼 문제로 느껴질 만큼, 매일 집안에서 듣게 되는 말들로...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도 사회도 내가 느끼는 고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나에게 10대다운(?)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내 또래의 나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과 전공선택을 고민하는 성실한 학생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겉으로는 무사히 그 시절을 보낸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결과는, 나와 다른 세대·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아예 처음부터 벽을 세우고, 선을 긋고, 해야 할 말만을 하고 살게 되는 것이다.

방송은 물론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에 따르며 기획되고 제작된다. 한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에 의해, 현 사회의 이런 심각한 세대간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든 말은 그 논리와 설정자체가 말이 안되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의 주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우연히 한 프로그램을 청취하게 되면서, 진솔함을 바탕으로 하는, 진지한 노력은, 각기 다른 세대와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움직일 수 있고,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허물어진 벽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모습들이, 의외로 같은 고민, 같은 관심사를 가진 비슷한 사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나는 방송을 매일 보고 듣는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우리 방송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을 하나되게 하는 노력을 진

지하게 시도하고, 이미 그런 결실이 보이는 프로그램은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 나가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